

## 중국 3대 석유화학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 1. 중국 3대 석유화학 기업의 국제적 위상

- 2008년 12월 1일 미국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이하 PIW)가 발표한 2007년 세계 석유화학기업 순위에서 중국의 3대 석유화학기업인 페트로차이나(CNPC), 시노펙(Sinope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가 각각 5위, 25위, 48위를 차지함(표 1 참조)
- CNPC는 원유 보유량에서 8위, 천연가스 보유량에서 12위, 석유생산량에서 4위,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9위, 정제능력에서 6위, 완제품 매출에서 14위를 차지하여, BP와 Shell을 제치고 2006년 7위에서 2계단 상승하여 종합 5위를 차지함.
- Sinopec은 2006년 29위에서 4계단 상승하여 종합 25위를 차지함.
- CNOOC는 2006년 51위에서 3계단 상승하여 처음으로 50위 내에 진입함.

<표 1> 세계 석유화학기업 순위 (2007년 기준)

순위	기업명	국가	원유 보유량		천연가스 보유량		석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정제능력		석유 완제품매출	
			순위	억 톤	순위	억 입방 피트	순위	만 톤/년	순위	억 입방 피트/년	순위	만 톤/년	순위	만 톤/년
1	Saudi Aramco	사우디아라비아	1	369.9	4	72,347	1	52,065	7	744	10	12,240	7	14,646
2	NIOC	이란	2	193.8	1	279,585	2	22,005	2	1120	14	7,830	12	9,349
3	Exxon Mobil	미국	14	15.5	13	19,330	5	13,080	3	970	1	31,495	1	32,389
4	PDV	베네수엘라	5	139.1	5	48,399	7	12,850	21	285	5	15,490	8	13,459
5	CNPC	중국	8	31.4	12	23,214	4	13,820	9	578	6	14,060	14	7,587
6	BP	영국	16	14.1	16	12,714	8	1,2070	5	842	7	13,845	3	25,660
7	Shell	영국/네덜란드	26	6.8	17	11,580	12	9,495	4	849	2	19,765	2	30,227
25	Sinopec	중국	34	4.2	47	1,793	26	3,995	52	80	3	18,235	11	11,192
48	CNOOC	중국	43	2.2	48	1,762	36	1,860	63	58	-	-	-	-

자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PIW)

<표 2> 중국의 3대 석유화학기업들의 재무정보(2007년 기준)

		CNPC	Sinopec	CNOOC
매출액	세계 순위	9	8	62
	억 달러	1,281	1,594	120
순이익	세계 순위	9	17	25
	억 달러	145	77	41
총자산	세계 순위	5	14	41
	억 달러	2,048	1,002	246
종업원 수	순위	1	3	76
	명	1,670,000	334,377	3,288

자료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PIW)

## 2. 중국 3대 석유화학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가. 페트로차이나(CNPC) :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 페트로 차이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력인 상류부문(원유생산)보다 하류 부문(정제&석유화학)의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일본 니폰 오일과의 합병을 통해서 1,000개의 주유소를 확보했으며, 아시아미국유럽 등에 6개의 로컬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무역량을 4억 톤으로 늘릴 계획임.
- 8~10년 내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 진출하여 해외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을 2억 톤 규모로 확대 시킬 계획임.
- 그러나 올해 연초에 발표한 목표량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목표량을 하향 수정하여 원유생산량을 10,825만 톤에서 10,271만 톤으로, 생산건설은 1,533만 톤에서 1,150만 톤으로 낮추었고 개발탐사투자액도 113.2억 위안 감소시킴.

<표3> 2009년 페트로 차이나의 주요 해외 인수합병 사례

월	내 용
1월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와 이란 북부 아자데간 유전개발에 합의하면서 17.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약
2월	캐나다 Verenex에너지사와 최종협약에 따라 진행 중이나 반대에 부딪힘
4월	카자흐스탄의 mangistaumunaigas사 지분을 45% 인수
6월	프랑스 토탈(Total)사와 함께 이란의 사우스파르스(South pars) 가스전의 11단계 개발 사업을 담당
	일본 니폰 오일의 오사카 정유공장 49%를 인수하는 방안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해 정식 승인을 받음 싱가포르 석유의 지분 45.51%를 인수함
7월	페트로 차이나와 영국 BP사와 함께 이라크 남부 루마일라 유전의 개발권을 확보
8월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와 남부 아자데간 유전개발 비망록을 합의하면서 70% 지분을 확보 (아자데간 유전은 이란 최대유전이며 비축량이 420억 배럴에 달함)

- 페트로 차이나는 최근 이라크, 이란의 중동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동지역의 진출 비중을 늘릴 계획임.

- 중동지역은 서구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세여서 기회가 적기 때문에 페트로 차이나의 5개 해외유전 중 중동지역의 규모가 작았으나, 2009년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음.
- 페트로 차이나는 향후 8~10년 내에 중동에서 연간 3,000만 톤을,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연간 5,00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임.

#### 나. 시노펙(Sinopec) :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 시노펙은 해외인수합병을 통하여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상류부문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시노펙은 2020년까지 국내외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을 1억 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 시노펙은 개발탐사에 많이 투자하여 상류부문을 확대시키고,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할 계획임.
-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하여 업스트림부문과 다운스트림부문의 연계효과를 노리고 있음.
- 시노펙은 2009년 6월 24일에 스위스의 아닥스(Addax)사를 72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는 중국의 해외자원인수합병 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됨 (표4 참조).
- 아닥스사는 연간 원유생산량이 5,110만 배럴에 이르며 보유량은 5.37억 배럴로써 향후 10년간 생산할 수 있음.
- 아닥스사의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13.7만 배럴로 중국 하루 소비량의 1.5%에 해당됨.
- 아닥스사 인수로 인하여 시노펙의 해외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상위 5대 M&A (액수별)

인수 합병 기업	인수 합병된 기업	액수 (억 달러)	일시
Sinopec	Addax	72	2009년 6월 24일
CNPC	PetroKazakhstan	42	2005년 8월 22일
Sinopec	Udmurtneft OAO	35	2006년 6월 20일
CNOOC	Oil & Gas Assets	27	2006년 1월 9일
CNOOC	Awulco Offshore ASA	25	2008년 7월 7일

자료: 제일재경일보(2009년 7월 14일)

<표5> 시노펙의 주요 해외인수합병 사례

일시	내 용
2005년 1월	미국 1.5억 달러에 미국First International 석유회사를 인수
2006년 8월	35억 달러로 러시아의 우드머트네프트 지분 96.86%를 3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입
2006년 8월	4억 달러로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과 함께 콜롬비아석유공사의 유전 개발권을 매입
2008년 12월	130억 위안을 출자하여 캐나다 Tanganyika사를 인수

#### 다. 시누크(CNOOC) :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주로 대체에너지에 주력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해양석유공사의 푸청위(傅成玉)회장은 금융위기에 충동적으로 M&A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이미 대형 천연가스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5년 내에 100억 평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로 결정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일찍이 LNG(액화천연가스)에 주력하여 보유량이 풍부하여 연간

1,26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LNG는 CNOOC의 에너지 공급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임.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일찍부터 해외로 진출하여 6년 전 처음으로 해외인수합병에 성공한 석유회사였으며, 성공적인 해외 인수합병 사례도 많음.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석유자산들을 인수했음.
- 2003년 생산량의 18.7%, 영업이익의 38%가 해외에서 발생하였고 해외저장량이 1.36억 배럴에 달함.
- 현재 미국 코스모스에너지의 가나 Jubilee 유전가스 지분(30%) 매입에도 관심이 있음.

<표6>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주요 해외인수합병 사례

일시	내 용
2002년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스페인의 Repsol사로부터 인도네시아의 5개 석유자산을 인수했고 (당시 중국기업의 최대 해외자산 인수합병 사례였음)
2005년	카자흐스탄 석유공사(PK)를 41.8억 달러에 인수함
2006년 초	세계 최대유전층 하나인 나이지리아 OML130 지역의 45%지분을 인수
2009년 4월	카자흐스탄 국영 카즈무나이 가스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Mangistau) 석유회사를 33억 달러에 인수
2009년 7월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낙찰 성공(영 BP와 공동)
	시노펙과 함께 미국 마라톤(Marathon)오일의 앙골라 32구 오일블록의 지분 20%를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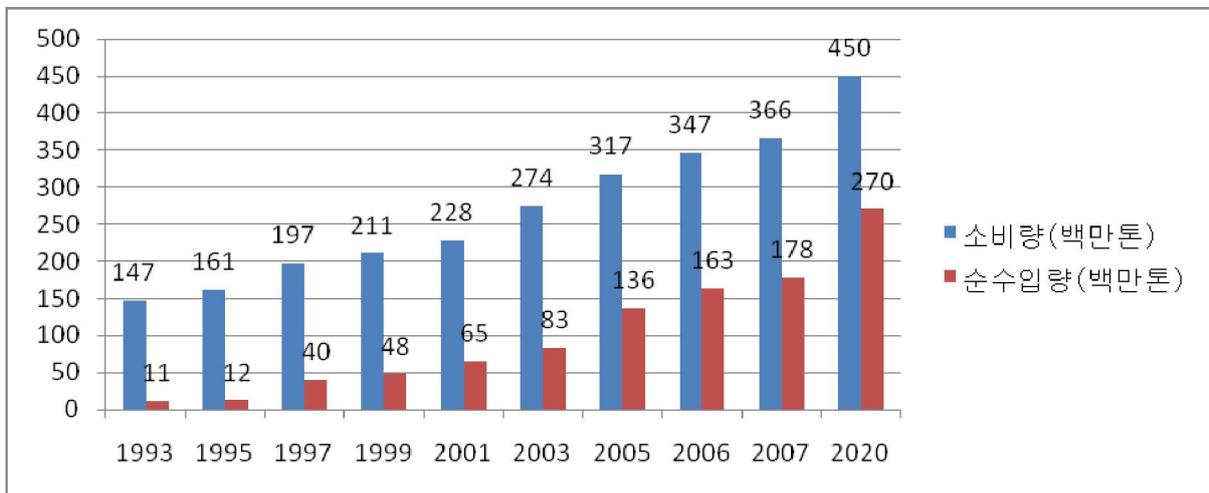
### 3. 해외진출의 배경

#### 가. 해외 석유자원 확보전략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원소비국이자 공급 리스크가 높은 자원 순수입국임.

- 중국은 2008년 세계 석유 소비의 9.5%를 차지하였음.
- 중국은 1993년에 석유 순수출국에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했으며 2008년 기준 소비량 대비 수입량 비중은 49.8%임.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중국의 원유수요는 연간 1.96억 톤에서 3.7억 톤으로 약 2배 증가함.
- 2008년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3.99억 톤이었으며 2020년까지 약 5억 톤으로 예상되며 누계수요량은 60억 톤임<sup>1)</sup>.
- 그러나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1인당 비축량이 세계평균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그림 1> 중국의 석유자원소비 및 수입량 추세(1993년 이후)



자료: 1993년~2007년은 중국통계연감

2020년은 「曹湘洪预测: 2020年我国石油对外依存度将达60%」(『浙江化工』, 2005年 36卷 第12期)

- 서구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인수합병의 실패를 겪으면서 반미정서가 강한 이란, 베네수엘라 또는 서방국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아프리카와 같은 틈새지역의 자원을 선점하고 있음.

1) 제일경제정보 (2009년 7월 14일)

- 2002년 12월, 페트로 차이나가 러시아 국유기업의 민영화 경매에서 거대기업인 Slavneft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려 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반대로 실패함.
  - 2005년 6월, 중국해양석유공사가 185억 달러에 미국의 유노칼(Unocal)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결국 미국 Chevron사가 171억 달러에 인수함.
  - 최근 에너지 자원문제로 인한 국가안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인 불안, 서구의 '중국에너지 위협론' 등이 중국의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 구소련, 중앙아시아 지역 등 주변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기존에 편중되었던 해상수송로에서 벗어나 육상 수송로를 확보하면서 수송경로의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그림2 참조).
- 중동, 아프리카에서 65%이상의 원유를 의존하는 구조를 다각화하여 에너지자원 공급원의 안정성을 강화하려 함.
  - 2006년 7월 25일 중국-카자흐스탄 간 송유관을 운용 개시했으며(원유의 50%는 카자흐스탄 유전에서, 50%는 러시아 유전에서 생산), 연간 원유 수송량은 초기 1천만 톤이며, 2010년부터는 2천만 톤으로 늘릴 예정임.
  - 중국-중앙아시아 간 천연가스관은 2008년 6월에 착공했으며 길이는 1,801km로 세계최장이며 2012년까지 연간수송량을 300억 입방피트까지 늘릴 계획임.
  - 중국-러시아 송유관은 2008년에 착공되었으며 연간 3,000만 톤의 러시아산 석유가 중국에 공급될 계획임.
  - 중국-미얀마 송유관은 2009년 9월에 착공될 예정이며 연간 2,000만 톤의 석유와 12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중국에 공급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말라카 해협 봉쇄라는 안보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2> 중국의 원유, 천연가스 송유관 계획도



자료: 제일제정일보 (2009년 7월 24일)

#### 나.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

- 중국정부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음.
  - 저우추취전략은 중국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투자리스크 분산차원에서 달러를 자원과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높은 생산성도 해외 인수합병의 목적중 하나임. 중국의 유전들은 중동, 아프리카의 유전들과 비교하면 면적대비 수익률이 매우 낮음 (중동: 하루기준 20톤 생산, 중국: 하루기준 4~5톤 생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합병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중국은 해외 에너지 관련기업을 활발하게 인수합병하고 있음.

- Dealogic Emna(Static)의 2009년 6월 30일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수합병 시장교역액은 4,597억 달러이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이 879억 달러로 26.7%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인수합병규모는 235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Dealogic Emna(Static)에 의하면 2007년 중국기업의 전체 인수합병 중 해외 인수합병규모는 34억 달러로 54%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해외인수합병규모는 46억 달러로 57%를 차지, 전체 인수합병 총액에서 해외인수합병 금액의 비중이 증가하였음<sup>2)</sup>.
- 2009년 상반기 중국 에너지 관련 기업의 국내인수합병규모는 6억 달러, 해외인수합병규모는 44억 달러로, 해외인수합병의 비중이 87%를 차지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
- 2009년 상반기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5%가 감소하였으나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은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음.

## 4. 문제점 및 전망

### 가. 문제점

-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벌일 정도로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현지경험과 협상력이 부족함.
- 일례로 목표생산량 초과 시 이라크정부로부터 배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페트로 차이나와 영국 BP사가 함께 개발하는 이라크 남부 루마일라 유전의 경우 최초 배럴당 3.99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절반수준인 2달러로 합의함.
- 중국해양석유공사가 시노펙과 함께 개발하는 이라크 Baiha유전의 경우 배럴당 26.70달러

2) 2007년 중국 에너지 관련기업의 국내 인수합병규모는 29억 달러, 해외 인수합병규모는 34억 달러였으며, 2008년 국내 인수합병규모는 36억 달러, 해외인수합병규모는 4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의 수수료를 요구했으나 이라크 정부는 4달러를 제시했고, Maysan 유전의 경우 중국해양 석유공사는 배럴당 21.40달러의 수수료를 희망했으나 이라크정부는 2.30달러를 제시함.

- 그러나 2005년 이후 적극적인 해외 합병인수들로 인하여 중국기업들은 점차 현지 노후를 축적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이 투자한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 확보 외교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견제하고 있음.

- 이라크, 북아프리카 등의 정치 불안이 매우 심각한데, 일례로 2008년 수단에서 안전사고가 2007년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발생하자 페트로 차이나 직원들이 대규모로 철수함.

-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한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각종 치안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반서방국가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와의 석유외교에 대하여 서구 국가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음.

-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에 대해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신식민화 전략이라고 지적함.

□ 국가 주도의 해외인수합병방식

- 일단 인수합병계획이 확정되면, 정부·공무원·국유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각기업이나 해당국가의 정부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

- 중국 3대 석유국영기업들은 해외합병 시 국유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거의 무제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경쟁기업들은 비시장적 행위로 받아들임.

- 3대 석유화학기업들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문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최종적으로 자기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함.

## 나. 전망

- 2010년은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로 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외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해외원유생산량의 목표가 8,000만 톤이나 2008년 현재 6,750만 톤이며, 석유·천연가스 무역량은 1.6억 톤이 목표였으나 2008년 현재 1.28억 톤임.
  - 이에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8일에는 ‘석유화학산업조정과 진흥계획세칙(石化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을 발표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해외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기구의 대외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境内机构境外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중 임.
- 상류부문 기업의 경우 유가안정이 인수합병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가가 안정되면 인수합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는 2008년 7월에 배럴당 147달러를 기록했다가 V자형을 보이면서 배럴당 30달러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최근 70달러까지 상승함.
  - 유가하락 시에 회사를 매각하면 자산이 저평가 되고 유가상승은 주가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상장기업의 가치는 고평가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아닥스사의 경우 3월에 주당 24캐나다달러였으나 6월에 36캐나다달러로 50%이상 상승했음.

- 현재 연말까지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고 현재 6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인수합병대상 기업들은 빨리 매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시노펙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인 Repsol YPF의 아르헨티나 지분 75%를 17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성공할 경우 최대 규모의 해외인수합병이 될 것임.
- YPF의 이윤은 11.59억 유로, 총자산은 118억 유로이며 아르헨티나 원유와 천연가스생산의 33%와 25%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번 거래를 승인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최근 중국해양석유공사의 푸청위(傅成玉)회장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음.

#### <참고자료>

经济观察报, 2009/7/20, “美元=资源+股份”目标不变 三大石油巨头年中盘点海外并购  
 中国经济时报, 2009/7/21, 中国并购市场下半年将更加活跃  
 第一财经日报, 2009/8/3, 海外资源获取：如何战略规划  
 第一财经日报, 2009/7/14, 大小通吃 中国油企海外并购大潮激荡  
 第一财经日报, 2009/7/24, “四面出击”勾勒 中国能源安全版图  
 21世纪经济报道, 2009/7/29, 中海油资源战略调整  
 21世纪经济报道, 2009/7/6, 226亿美元？中石油中海油涉内地最大海外并购  
 南方周末, 2009/8/20, 走出去央企海外集体舞

(자료 정리: 문익준 /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박사과정)